

시민장터로 사회적경제 가치 알린다

첫 번째 '전주시 사회적경제 시민장터' 개최... 11월까지 매일 이틀간 진행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판매·공연·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공동의 이익과 나눔을 실천하는 전주지역 사회적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시민장터가 풍남문광장에서 열렸다.

전주시는 지난 29일과 30일 이틀간 풍남문 광장에서 '2022 전주시 사회적경제 시민장터' (이하 시민장터)의 첫 번째 장터를 개최했다.

시민장터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로, 전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및 조직, 공공기관 등 여러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협동조합 전주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대표 이홍락)가 주최한다.

전주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에서 풍남문광장으로 이어지는 풍물패의 거리퍼레이드로 문을 연 이날 행사에서는 광장퍼포먼스인 풍물공연(기집놀이)과 난타공연이 펼쳐져 흥을 돋웠다.

이어 풍남문 광장에 마련된 이번 시



전주시는 지난 29일과 30일 이틀간 풍남문 광장에서 '2022 전주시 사회적경제 시민장터'의 첫 번째 장터를 개최했다.

민장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판매·체험부스(30개) △사회적경제단체 문화 예술공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회적경제 라이브 커머스 등이 운영됐다.

특히 이번 시민장터에 참여한 사회

적경제조직들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홍보부스와 각종 홍보물 등 행사 전반에 친환경 소재를 활용기로 했다. 또, 지역 내 상권과 공공기관들도 지역경제의 상생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시민장터는 이번 첫 행사를 시작으로 △8월 26~27일 △9월 7~8일 △10월 13~14일 △11월 11~12일 개최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7월에만 폭염에 대비해 오후 4시부터 9시까지이며, 8~11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여기에 △추석한가위장터(9월) △거리인형극축제(10월) △가래떡 나눔행사(11월) 등 매일 특색 있는 행사도 진행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문화·예술공연, 지역행사 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시는 이번 시민장터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성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은 "이번 시민장터는 시민들이 우리가 사는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흥겨운 타악 퍼포먼스 펼쳐져

전주덕진예술회관에서 난버벌 타악 퍼포먼스 '아미고' 진행

전주덕진예술회관에서 흥겨운 타악 퍼포먼스 공연이 펼쳐졌다.

전주시는 지난 29일과 30일 이틀간 전주덕진예술회관에서 '2022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우수레퍼토리공연'의 두 번째 프로그램인 난버벌 타악 퍼포먼스 '아미고(ARMY GO!)'가 무대에 올랐다고 밝혔다.

난버벌 타악 퍼포먼스 아미고(ARMY GO!)는 타악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타악연희원 아귀의 난버벌 타악 퍼포먼스 작품으로, 지난 2020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사)타악연희원 아귀와 전주덕진예술회관이 합심해 제작한 첫 번째 난버벌 타악 퍼포먼스다.

이 공연은 군악대를 배경으로 한 국대회에서 우승한 아미고 팀이 세계군악연맹대회 참가를 위해 출국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해프닝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전우애를 담고 있다.

특히 '아미고(ARMY GO!)'는 2020년 초연 이후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신나는 예술여행'에 선정돼 전국 군부대를 순회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남동소대아트홀과 장수한누리전당 초청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박종대 (사)타악연희원 아귀 대표는 "타악의 새로운 재미와 즐거움



을 드리기 위해 오랜 구상 시간을 가진 뒤 2020년 초연을 마쳤고, 초연 이후 다양한 초청공연을 통해 작품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왔다"면서 "이번 우수레퍼토리 공연을 통해 전라북도민에게 그간의 성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재수 전주시 예술단운영사업소장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난버벌 타악 퍼포먼스(ARMY GO!)가 전국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번 공연과 향후 지원을 통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대표적 인성공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전통성당' 아름다운 옛 모습 되찾고 시민 품으로

원형 보존 위한 보수정비 공사 마무리·가설비계·가림막 해체

원형 보존을 위해 보수정비 공사가 추진된 전주 전통성당이 2년 2개월 만에 다시 시민 품으로 되돌아온다.

전주시는 국가 사적인 전주 전통성당의 원형 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공사를 마무리하고 가설비계와 가림막을 해체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전주 전통성당은 외부 벽돌 표면에서 박리현상과 함께 풍화작용이 진행

되면서 손상이 심해 보수정비가 요구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19년 보수정비 설계를 거쳐 2020년 6월부터 총 10억 원을 투입해 전통성당의 종탑과 첨탑을 중심으로 고벽돌 4천여 장을 교체하고 줄눈, 창호 등을 보수했다. 또, 미관 향상을 위한 표면세척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 전주 전통성당은 호남지

역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종양의 종탑과 양쪽 계단에는 비잔틴 양식의 뾰족한 돔을 올린 것이 특징이다. 또, 성당 내부의 석조 기둥에도 비잔틴 양식이 녹아있으며, 한국의 교회 건축물 중 곡선미가 가장 아름답고 웅장해 전주시민과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여행객에게 큰 사랑을 받아 왔다.

시는 그동안 보수공사를 위해 설치된 가설비계가 해체된 만큼 전통성당의 복원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전통성당의 진면목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보수정비를 통해 옛 모습을 되찾은 전통성당에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인 문화재 보수를 통해 전주시 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보건소, 장애인 대상 청년건강검진 실시

전주시가 청년 장애인들의 건강돌보기에 나섰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8월부터 장애인 대상 청년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보건소 청년건강검진 사업(내몽사람 2030 청년건강관리사업)은 전주에 주소 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학업과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을 돌보자는 취지로 2015년 시작된 사업이다.

이번 장애인 대상 청년건강검진 대상자는 전주지역 13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검진을 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보건소는 편리하고 안전한 건강검진을 위해 대상자에게 개별연락 후 예약 및 1:1 동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검진항목은 △흉부방사선(결핵) △혈액검사 △소변검사 △체성분검사(체지방률 등) △건강상담(금연·절주·영양) 등이다.

/김윤상 기자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전국서비스 시행

전주시는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 분야의 민원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산지전용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 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복구조성공·용도변경의 승

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등이다.

또한 편의 기능으로 필지별 정보조회와 주제도 확인 등 GIS 기반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민원 진행 현황을 홈페이지와 문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산지전용에 따라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역시 시스템을 통한 징수·관리가 이뤄지게 돼 징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상 기자

예초기 안전사용·고장수리 실습교육

전주농기센터, 시민 30명 대상 실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주시민 30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예초기 안전사용 교육과 자가 고장수리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참석자들은 △예초기 작업 전 점검 방법과 올바른 사용법 △안전 보호구 착용방법 등을 배웠다.

또한 10명씩 3개 반으로 나뉘어 전문농기계 교관으로부터 △시동이 되지 않을 때 점화플러그 교체방법 △기화기의 주재트 밸브에 오일이 끼어 시동이 되지 않을 때 수리기술 △저속 사용시 안전하게 회전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제일 중요한 예초기 칼날 교체 방법 등 고장 시 자가수리 방법을 배우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예초기는 여름철 원활한



잡초 제거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농작업 도구이지만 해마다 빠르게 회전하는 칼날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작업 중 회전하는 칼날에 돌과 같은 이물질이 부딪히면서 주변 사람 또는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자의 주의 및 개인보호 착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